

# 어제를 끄고 내일을 켜다

Turn off yesterday  
and turn on tomorrow

글. 정이숙  
Jeong, Yisuk  
카피라이터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졌다. 소나기였다. 서둘러 창을 닫았다. 닫히는 창문 틈을 비집고 바람이 훑 쏟아졌다. 창 넘어 보이는 나뭇가지들은 온몸을 떨며 바람을 맞고 있었다. 심여 분이나 흘렸을까? 땅이 채 흠뻑 적기도 전에 비가 그쳤다. 창문을 다시 열었다. 바람의 온도가 바뀌어 있었다. 땀에 닿는 공기가 서늘했다. 가을이 코앞에 있었다. 불과 몇 분 만에 훌쩍 계절이 바뀌는 다리를 건너온 것 같았다. 나뭇잎이 우스스 서로 스치며 바스락 소리를 냈다. 나무들은 어느새 초록을 끄고 단풍을 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록이 꺼지고 단풍이 켜지는 찰나가 울컥 느껴졌다.**

곧 천지에 단풍이 들겠지? 이어서 낙엽이 지고, 나무들은 빈 몸으로 겨울을 맞을 것이다. 겨우내 마른 가지에 새 움을 키우다가 봄이 되면 슬그머니 연둣빛 새 잎을 내놓을 것이다. 내년의 그 잎은 지금 저물어가는 초록이 되살아나는 것일까? 아니면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는 것처럼 올해와 똑같은 초록은 다시 볼 수 없는 것일까? 생각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 미술품 보존복원 전문가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 영상을 떠오르게 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의 기대감이 높았던 2021년, 기아자동차가 시리즈로 만들어 내보낸 광고다. 영상 속의 모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마스크를 벗어도 팬데믹 이전으로 감쪽같이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진실을 미술품 복원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



자막) 미술품 보존복원 전문가 김경  
 김경) 감쪽같이 돌려놓는 복원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품에게도, 우리에게도 회복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견뎌낸 시간만큼 더 단단해진 우리의 일상이 모두에게 돌아올 겁니다.  
 Na) 더 뉴 기아 K9.  
 자막) Masters that inspire The new Kia K9  
 KIA  
 Movement that inspires

나는, 초록이 꺼진 자리에 단풍이 켜질 것을 알지만 코로나가 꺼진 자리에는 무엇이 켜질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 코로나가 강제한 거리두기와 혼자 놀기, 자가위생검열이, 강제성이 사라진 후의 내 일상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궁금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아 광고 속 복원 전문가의 말처럼 완벽한 복원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팬데믹 이전의 나는 아주 바빴다. 지나치게 오지람이 넓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느라 내 안 깊은 곳의 나를 잊고 살았다. 늘 시간이 부족했는데 늘 시간을 헤프게 썼다. '돈이 없지 마음이 없냐'를 모토로 순간의 감정에 쉽게 몰입했다. 혼자 흥에 겨워 남보다 빨리 마음을 열고, 남들도 다 나 같으려니 순진하게 믿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자주 현실을 외면했고 미래의 불안함을 얼렁뚱땅 얼버무렸다.

변함없는 똑같은 날들이 영원히 되풀이될 것처럼 미련하게 살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만났다. 그리고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어찌어찌 적응해 살다 보니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감쪽같이 복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지나온 날들은 지나온대로 충분하다는 자각이 들었다. 계절이 열두 번 바뀌는 동안 어찌어찌 과거는 이미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제가 사라진 자리에 내일이 서서히 밀려들고 있다.

역시 상념은 제멋대로 흘러 아주 오래 전에 만들었던 에너지의 날 행사 슬로건 '불을 끄고 별을 켜다'가 생각났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매년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이 되면 밤 9시부터 5분 동안 모든 건물의 전등을 끄는 행사를 진행한다. 2004년엔가 그 단체의 간사로 있던 친구의 부탁으로 만들었던 슬로건이자 행사 명칭이 바로 '불을 끄고 별을 켜다'이다. 나와 공작이 가장 잘 맞는 아트디렉터와 간사인 친구까지 셋이 앉아 회의를 하다가 30분이 지나기도 전에 떠올라 결정된 슬로건이다. 단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이 내가 쓴 카피 중에 가장 오랜 수명을 기록하며 올해 까지 쓰이고 있다.



불을 끄면 별이 보인다. 별을 보려면 아쉬워도 불을 꺼야 한다.  
 코로나 이후를 환하게 밝히려면 코로나 이전을 꺼야 한다고 말하면 지나친 역설이 될까?  
 나는 지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기꺼운 마음으로, 어제를 끄고 내일을 켜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jCCMBNiM2I>  
 기아\_더 뉴 기아 K9 | Masters that inspire, 김경 편\_2021\_유튜브 링크



**정이숙 카피라이터**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카피라이터로 광고와 인연을 맺었다. 롯데그룹의 대홍기획을 시작으로 한화그룹의 한컴, 종근당의 벨컴과 독립 광고대행사인 샴페인과 프랜티브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로 일했다. 지금은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의 CD로 퍼포먼스 마케팅의 세계에 발을 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응답하라 독수리 다방>(2015), <광고, 다시 봄>(2019), <똑똑, 성교육동화>시리즈(2019) 12권, <김민준의 이너스페이스>(2020)가 있다. abacaba@naver.com

# 내일의 불안을 지우고 건강한 100세를 그립니다

병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진정한 WELL LIFE가 시작됩니다  
 한화손해보험이 당신과 함께, 당신의 WELL LIFE를 그려가겠습니다



당신의 일상 WELL COME BACK!

## WELL100 간편건강보험

WELL100은 "유병자의 건강한 일상이 100세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한화손해보험 유병자 보험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이 상품은 간편고지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나이제한 등 일반고지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고지 상품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https://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67966호(2022.05.10 ~ 2023.05.09)

